

요 약

■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.2% 성장한 후,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.9% 성장할 전망
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20년에 0%대 중반을 기록하고, 2021년에도 0%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-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후,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.

1.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

■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.

- 1/4분기에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됨.

■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, 투자는 작년에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

- 민간소비는 국내총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, 해외여행 제한으로 서비스수입이 급감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됨.
-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반도체 관련 기계류와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
-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.

■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,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.

-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.

■ **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,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**

-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위축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
-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,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
-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,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.
-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

■ **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,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**

-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.
-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,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
-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

■ **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·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**

-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할 필요
-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IT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도 필요

II. 2020~21년 국내경제 전망
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

- 세계경제가 2020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, 2020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
 - 최근 IMF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2020년에 -3.0%의 역성장을 기록한 다음, 2021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5.8%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원유 도입단가(두바이유 기준)는 2020년에 45% 정도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를, 2021년에는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
-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0년에 4% 정도 절하된 후, 2021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

2. 2020~21년 국내경제 전망

-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.2% 성장하는 데 그친 후, 2021년에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.9% 성장할 전망
 -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,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거주자의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으나,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.
 -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수요의 회복과 작년의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.
 -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8년 이후 지속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.
 -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.
- 경상수지는 수출물량이 축소되었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2020년에 작년과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하고, 2021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

-
-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.
 -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에 작년(3.8%)보다 소폭 높은 3.9%를 기록할 전망
 -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후,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

3. 전망의 위험요인

-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.
 -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할 경우,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인 서비스업 위축으로 제한되고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전망
 -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,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경로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.

2020~21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, 억달러)

	2018 ^p	2019 ^p	2020			2021
	연간 ^p	연간 ^p	상반기	하반기	연간	연간
국내총생산	2.7	2.0	-0.2	0.5	0.2	3.9
총소비	3.5	3.1	-1.3	1.3	0.0	5.2
민간소비	2.8	1.9	-4.0	-0.1	-2.0	5.3
총고정투자	-2.4	-3.3	1.8	1.4	1.5	4.2
설비투자	-2.4	-7.7	0.6	1.3	0.9	7.9
건설투자	-4.3	-3.1	2.1	0.7	1.4	2.4
지식재산생산물투자	2.2	2.7	2.4	3.0	2.7	4.1
총수출(물량)	3.5	1.7	-3.5	-3.4	-3.4	4.9
상품수출(물량)	3.3	0.5	-1.8	-1.6	-1.7	3.9
총수입(물량)	0.8	-0.4	-4.1	-3.5	-3.8	7.5
상품수입(물량)	1.6	-0.8	-1.2	-1.0	-1.1	5.6
경상수지	775	600	227	367	594	409
상품수지	1,101	769	336	441	778	664
수출(금액)	6,263	5,620	2,360	2,365	4,725	4,920
(증가율)	(7.9)	(-10.3)	(-15.2)	(-16.6)	(-15.9)	(4.1)
수입(금액)	5,162	4,851	2,024	1,924	3,947	4,256
(증가율)	(10.6)	(-6.0)	(-16.2)	(-21.0)	(-18.6)	(7.8)
서비스수지, 본원 · 이전소득수지	-326	-169	-109	-74	-184	-255
소비자물가	1.5	0.4	0.6	0.2	0.4	0.8
근원물가	1.2	0.7	0.4	0.2	0.3	0.5
실업률 (계절조정)	3.8	3.8	4.2 (3.9)	3.6 (4.0)	3.9	4.1

주: p는 잠정치.

Ⅲ. 정책방향

1. 재정정책

-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,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
 -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,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
- 한편,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
 -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,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

2. 통화정책

-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,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
-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목표(2%)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
 -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가격,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